

전북대-도의회, 대학-지역 상생 연대

농산경위 위원들 초청 발전방안 논의... RISE 등 긴밀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4일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나인권 위원장 등 6명의 위원들은 현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전북도 관계자들과 전북대를 찾았다.

이들은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과 LINC3.0 사업, 산학융합플라자 구축사업, 메카노바이오 융합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지역과 관련된 주요 국제 사업의 현황과 추진 시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 시설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들은 전북대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RIS 사업과 RISE 사업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키

로 했다.

특히 전북대 익산 특성화캠퍼스에 창업보육센터 등을 신설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고,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들은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및 산학융합플라자 입주 부지 등을 직접 돌아봤다.

위원들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생명·바이오, 첨단소재, 에너지신산업 등의 특화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전북대가 연구개발에 힘써 신산업 변화에 발맞춘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의 우수인력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업과 인력이 전북에 동지기를 수 있도록 전북대가 학계·산업계·연구기관 간 가교 역할에 적극



전북대학교는 14일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나인권 위원장 등 6명의 위원들은 현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전북도 관계자들과 전북대를 찾았다.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양오봉 총장은 “그간 전북도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산학융합플라자 구축사업과 RIS 사업, RISE 사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북대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과 세계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석원 회장(금속공학과)을 비롯해 김인수 명예교수(수학과), 이왕후 명예교수(농생물학과) 등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들이 양오봉 총장과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글로벌대학30 유치 ‘한마음’

전북대 명예교수들, 양오봉 총장 만나 협력 약속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들이 글로벌 대학 30 사업 유치를 위해 명예교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김석원 회장(금속공학과)을 비롯해 김인수 명예교수(수학과), 이왕후 명예교수(농생물학과) 등은 지난 13일 양오봉 총장을 만나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원 회장은 “7월 10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명예교수 총회에서 글로벌

대학 30 사업 유치를 위해 명예교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가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명예교수님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석원 회장은 “모교 발전을 위해 명예교수 모두가 원팀이 돼 대학 발전에 전방위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1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내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제37회 순직교육자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서거식 교육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 발전 위해 헌신·열정에 경의’

도교육청, 순직교육자 추모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내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제37회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직교육자 추모제는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교육자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행사로, 전북교육청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이날 추모제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순직 교원 유가족, 김명지 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 유·초·중등교원)장 협의회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와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전북에는 80여 명의 순직교육자가 있다. 이분들은 우리의 든든한 동료였으며, 유가족에게는 돌도 없는 아들·딸이자 자상한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였다”면서 “전북교육은 이곳에 계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한 길만을 묵묵하게 걸어오셨던 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교육자가 현장에서 외롭지 않게,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4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집중 홍보 Day를 운영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집중 홍보 나섰다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4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집중 홍보 Day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학생과 2년 이내 졸업생, 지역 청년 등을 대상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기 위해 스타터 일대에서 이뤄졌다.

세부 내용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및 트레이닝 교육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비교과 포인트 및 장학금 연계 안내 등이다.

특히 전주대는 재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이수할 경우 비교과 포인트와 연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45명)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진행되고 있다.

나우성(부동산국로정보학과 2년)학생은 “K-디지털 역량 올리GO! 기부해하OB 집중 홍보 Day” 행사를 기획하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년고용정책에 직접 참여해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상행 센터장은 “취업 서포터즈를 통해 청년층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K-디지털 기초역량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청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이수할 경우 비교과 포인트와 연계해

/정은성 기자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

도교육청, 교원 대상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초중고 546개교 7,1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하반기부터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가 보급되고 각 교실에 스마트칠판도 설치되는 만큼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초중등 교원으로 구성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선도교사단’이 신청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웨일(초등), 구글(MS(중등) 등 플랫폼의 기초 활용 △각각의 계정 생성 및 학급 관리 방법 △해당 플랫폼에서 활용가능한 에듀테크 관련 APP 소개 및 수업 실제 적용 방법 등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에듀테크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학년별 활용 수업 실시간 직



무연수, USB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실시간 직무연수, ‘찾아가는 에듀테크 직무연수’ 등을 통해 전북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능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교실 수업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초중등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기술직공무원 전문 역량 강화·청렴도 향상

도교육청, 상반기 직무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청주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기술직공무원 19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기술직공무원의 청렴도와 직무역량을 강화해 교육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시설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자 청렴교육 △건설공사협장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해 △에듀빌 관리 강화 △여름철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및 여름방학 중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관리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술직공무원들이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사무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

교육청 정책 방향 공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구 학부모회직원 및 사무실무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구 학부모회직원 및 사무실무사들이 정책추진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제

워졌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업무 지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뿐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

김필중 예산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북교육의 정책 방향을 공유해 구 학부모회직원 및 사무실무사들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3 담임교사 대입상담프로그램 활용법 연수

도교육청, 내일 우수대 문화관서... 프로그램 활용 정시 등 설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우수대학교 문화관에서 대입상담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3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북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대입상담프로그램 활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등을 관리하는 기능과 해당 연도 전형 정보 조회, 대학별 점수 산출 기능을 제공해 다양한 대학별 전형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연수에는 대교협 최정우 전문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대입상담프로그램 사용법을 안내하고, 대구혜영교 김정환 교사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시 및 정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입시가 다양해지고 변화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담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대입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교3 담임교사가 학생의 성적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학생에게 체계적인 대학별 지원전략을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